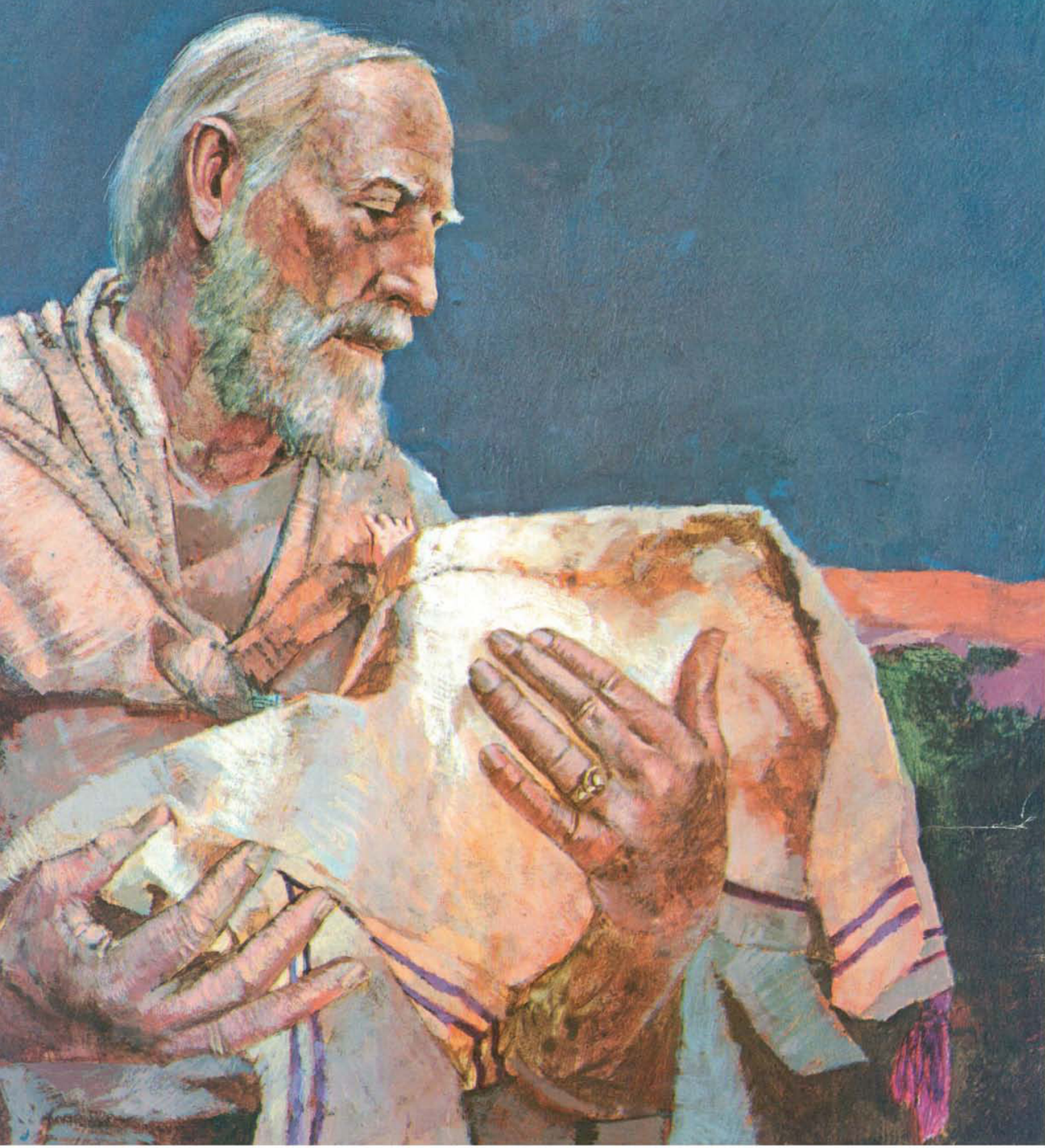


# 성도의 빛 2

1974



# 성도의벗

## 순서

1	하나님의 신권	엔 엘돈 태너
7	가정복음 헌법	
9	저분은 하나님의 종일 거예요.	레온 알 하트슨
11	히브리인의 예절과 풍습	시드니 비 스페리
16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약과 축복	
19	아브라함의 여행과 그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	
21	스미스 대관장께서 그의 팔을 잡으셨다.	
22	금판	
23	사도가 어린이에게 주는 말씀	마빈 제이 애쉬튼
24	친구가 친구에게 : 할머니가 주신 교훈	데오도르 엠 버튼
26	리자가 배우는 곳	메어리 앨런 줄리
27	심심풀이	
28	안개속에서 들린 음성	
30	마음의 청결함	본 제이 페더스톤
32	질의 응답	
33	살아계신 예언자란 무엇인가?	에이 데오도르 터틀
36	계시의 반석	조셉 앤더슨
39	너희 어린것들을 보라	보이드 케이 패커
42	교회의 진정한 힘	고든 비 힝클리
46	내외 소식	

# 혜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등록번호 라-932  
1967년10월 4 일  
발행일 1974년 2월 1 일  
매월 1 일 발행  
통권 제103 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 수

**고문 위원회**  
교내 연락 책임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번역 및 배부 책임자, 존 이 카  
교회 잡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육자료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정가 1 권 100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1974년 2월호 성도의벗 제 10권 제2호

**하**나님의 신권과 권능으로 교회의 제반 일을 지시하고 처리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이요 책임입니다. 이 권능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권능 하에 교회의 제반 의식이 집행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신권과 권능을 소유하는 것은 보다 큰 특권이요 축복이요 책임이며,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 이 성스러운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물어 온 다음의 여러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 신권이란 무엇입니까?
2.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신권과 권능을 소유한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왜 당신은 교회의 제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십니까?
4. 누가 신권을 소유합니까?
5.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6. 신권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말일에 속한 신권에 대하여 다루고 싶으나, 우리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신권이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그것으로 인해 온 우주가 존재하며 그것으로 인간이 존재하게 된 바로 그 율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권은 우주의 공전을 하게 하며 날과 주와 달과 해와 계절을 줍니다.

그는 덧붙여서 신권이란 “통치와 율법과 의식의 완전한 조직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한 문에서 다른 문으로, 한 파수병을 지나 다른 파수병으로 가 결국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게 됩니다.”(설교집 2권 139 페이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은 아담에게 위임되어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내려왔으며, 아브라함은 위대한 대제사 멜기

## 대관장단 메시지 대관장단 제 1 보좌 엔 엘돈 태너

# 하나님의 신권

“신권의 능력으로만이 복음의 의식을 행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 집니다. 이것 없이는 침례를 줄 수 없고, 확인 할 수도 없으며, 성임 할 수도 없고, 직무를 수행 할 수도 없으며, 교회의 어떠한 관리직이라도 맡을 수 없습니다. 여성 단체에서 역원이나 교사의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신권의 권능에 의하여 부름을 받아 성임 됩니다.”





세뱃에게서 이를 받았고 “이 신권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속되나니,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해도 없느니라.”

“또 주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도 대대로 끝까지 한 신권을 확인하여 주셨으니, 이 신권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반차를 좇는 신권과 더불어 영원히 계속되며 머물러 있느니라.”

“이 대 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의식을 집행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4 : 17-21)

이제 말일의 신권과 그 회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우리가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신권과 권능을 받은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앙개조 5조에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이 조항은 히브리인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권 성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 5 : 4)

이 교회의 특별하고도 중요한 요소는 신권이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셨습니다.

“신권이란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인간은 이 신권으로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권능은 앞서 죽은 세대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와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활하는 현대에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

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복음 교리 [데저렛 출판사 1939년 개정판] 139-140 페이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물문경을 번역하고 있던 중, 칠패 요한이 그들에게 나타나 자기는 더 높은 신권의 열쇠를 지닌 고대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요셉과 올리버의 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은 말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중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영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칠패를 베푸는 열쇠를 또다시 레위의 자손들이 의롭게 제물을 주게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3편)

요셉 스미스는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와 올리버를 사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성임하셨으며, 때가 찬 말일을 위하여 하나님 왕국의 성역을 베푸는 열쇠와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맡겼다고 기록하였습니다.(교성 27 : 12-13 참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될 때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 가운데 작성될 기록이 있으리니, 그 기록중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견자와 번역자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장로로 불리우리니,

“성령에 감동되어 교회의 기초를 닦으며 이를 가장 거룩한 신앙으로 세워 일으키리라.”(교리와 성약 21 : 1-2)

신권의 권능은 한 개인의 권리로 주장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신권을 지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중 한 가지는 이 권능을 합당하게 위임받지 않았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권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한 국가의 왕이나 국회

의원이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만일 정당하게 임명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마치 국가 대표인양 서류에 서명을 했다면 그는 문서 위조죄와 법률 위반죄로 구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이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그러하였듯이,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권능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권을 지상에 부여하실 때는 반드시 참된 신권의 권능을 가장한 거짓 신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인 교회 제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권의 능력으로만이 복음의 의식을 행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집니다. 이것 없이는 침례를 줄 수 없고, 확인할 수도 없으며, 성임할 수도 없고,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으며, 교회의 어떠한 관리직이라도 맡을 수 없습니다. 여성 단체에서 역원이나 교사의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신권의 권능에 의하여 부름을 받아 성임됩니다.

모든 경륜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기에 신권은 회복되었으며 그 신권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있으며 따라서 이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조직된 교회입니다. 신권은 신회로부터 나왔으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권은 권능으로 위임되고, 이 권능이 없이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신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앙개조 9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시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뜻을 그의 종 예언자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자기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교회의 회원들에게 대변자가 되어 주

는 신권 대표자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통역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권이 필요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신권을 소유하는가 입니다. 합당한 사람으로 성임된 남자이면 누구나 신권을 소유하고, 그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회원은 소년 이 12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신권을 받고 집사직에 성 임되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신권 승진을 받게 되어 18세에 이르면 역시 자동적으로 장로로 성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신권의 반차에도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젊은 형제거나 나이 들은 형제거나 모든 형제는 신권을 받고 승진되기 위하여는 침례받을 때 맺은 성약을 지키고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신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요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부모, 교사, 감독, 스테이크 부장은 신권 후보자에게 신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며 관리 역원은 그를 성임하기 이전에 그가 모든 면에서 신권받기에 합당한지, 신권의 의미를 기꺼이 받아들이는지, 신권의 책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등을 알아보는 접견을 가져야 합니다.

신권 후보자는 모든 신권 소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집사, 혹은 교사, 혹은 제사, 혹은 장로, 혹은 칠십인, 혹은 대제사로 불러 그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게 할 때는 그 사람이 합당한 대변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18세의 젊은 청년이 교회에서 보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집사나 교사나 제사나 장로에 성임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책임이요, 특권이며 명예입니까. 그러므로 이 커다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며

“신권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신권을 통하여 우리는 침례, 확인, 성찬, 영원한 인봉과 죽은자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는 모든 신권사업등의 복음의 의식을 받아들이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권의 능력으로 인하여 병자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병든자가 고침을 받고 앓은 병이가 걸을 수 있고 눈먼자가 볼 수 있으며,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신권의 축복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며, 고통당하는 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세상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은 신권의 책임과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는 어떠한 직분이라도 부름이 올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의 관리 역원이 주는 어떠한 지명이라도 받아들여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주께서는 이와 같은 커다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교리와 성약 84 : 33, 38) 이 모든 것은 신권을 영화롭게 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권에 대하여 기록된 교리와 성약 84편과 107편을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나는 신권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강조하신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농장에서 살면서 일이 많았으나 나의 아버지는 나의 신권 의무가 제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요” 라는 지침을 신조로 삼고 자랐으며, 생활하는 동안 그것이 진실로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게 병자를 축복하게 하시거나 다른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는 등의 신권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연관된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 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의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에서 정직해야 하고, 무례함이나 불경스러움을 피해야 하며, 우리 이웃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깨끗하고 훌륭한 삶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가정의 조화와 화평을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로 인한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치게 해야 합니다. 교회 표준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언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신권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여야 하며 도움을 요구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을 뻗쳐야 합니다.

신권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신권을 통하여 우리는 침례, 확인, 성찬, 영원한 인봉과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는 모든 신전 사업등의 복음의 의식을 받아들이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권의 능력으로 인하여 병자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앓은뱅이가 걸을 수 있고, 눈먼 자가 볼 수 있으며,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신권의 축복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며, 고통당하는 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팀을 이해한다면,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 요한이 그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타나셨을 때를 묘사한 다음 귀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영원에서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음성이 들리더니 장막이 걸히고 영광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오랫동안 고대하였던 메시지와 회개의 복음의 열쇠를 가져다 주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가? 세상이 온통 혼동되어 있을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벽에 가리워 앞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보았으며 들었다. 한낮의 빛처럼, 아니 오월의 햇살보다 더 반짝이는 빛이 자연의 얼굴 위에 비쳤다. 그러자 그가 운에서 나온 온화하나 중심을 뚫는듯한 ‘나는 너희의 종이라’는 그의 음성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앴다. 우리는 듣고 응시하고 경탄하였다. 이는 영광 중에 오신 천사의 음성이었으며 가장 높으신 이로부터 온 메시지가였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영혼은 그의 사랑에 사로 잡혔으며 전능하신 분의 시현에 황홀하여졌다. 의심할 여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불확실은 사라지고 의심은 없어졌으며 거짓과 기만은 영원히 그 자

취를 감추었다!” (교회정사 1권 43페이지)

신권에 대한 토론에서 제이 루벤 클라크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에서 정부가 갑자기 해체된다면 교회의 조직은, 필요한 인가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사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는 교회의 질서를 잡아 주는 교사는 경찰의 임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법정을 열 권한을 가지게 되며, 고등 평의원과 스테이고 부장은 공소권 및 소송권을 가진 법정을 열 권한을 가지게 되고 교회의 대관장단에게 상고하여 최종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교회 대관장은 국민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제반 법률과 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권의 조직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지구 상에 다시 오실 때 이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신권의 완전한 능력과 조직을 잘 설명해 주는 일례를 우리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 1935년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던 것을 교회가 자체 내에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 주도하게 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겪은 경험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의 조직을 세워야 할지 알려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권을 일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계획은 필요치 않다.” 이 응답대로 일을 행하였으며 복지 프로그램은 번창하여 신권의 금자탑을 이루었고 이는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변자이신 지도자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진대 우리는 가정과 자신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동료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봉사하며,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 수 있게 됩니다. ㉞



# 가정복음 헌법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



**가**정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최근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십이사도 지역 대표에게 “가정 복음 헌법”을 발표하였다.

맥콩키 장로는 그의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명료한 발표력으로 다음 10개조항의 헌법을 발표하였다.

1.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율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비례하여 구원받는다.

2.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그의 음성으로, 천사의 성역으로, 성신의 은사로 회복되었다.

3.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복음은 가정 중심, 가족 중심인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이룬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신명기 6:6-9)

4. 그리하여 가족은 완전해질 수 있으며, 부모는—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 회원과 세상에 메시지를 주는 곳—임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중요한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5. 신권이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대행하도록 지상의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며, 이 신권을 소유한 자가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가

르칠 수 있는 주님의 역군이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84:19)

6. 신권 정원회는 신권 소유자에게 다음을 훈련시킨다.

가. 가족을 가르치고 이끄는 방법

나.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 및

다. 영생을 얻는 방법

정원회 회장은 회원과 함께 “회의를 열며 저들에게 저희 직분의 의무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이끌 책임을 지고 있다. (교성 107:85)

7. 이렇게 훈련을 받은 아론 또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가르치며, 설교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항상 교회를 돌보며,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

과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며,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이 없는지, 교회 회원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지 살펴야 한다.

신권 소유자란 모로나이가 고대 기록을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넘겨 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이다: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지 못하리로다. 거듭 이르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를 대속하사 흠이 없는 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리라.” (모로 10:32-33)

8. 가정 복음 교사는 신권 대표자이며 가정 복음은 교회의 전체적인 사정을 볼 수 있는 신권의 방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권 정원회는 회원을 지도하고 강화하여 그들 가족을 완전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가족, 개인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고 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합당하게 진행되는 가정 복음은 왕국의 시민 모두에게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다.

9. 신권 협의회의 목적은 주께서 그의 교회에 임명하신 과업을 주님의 방법에 따라 조직하고 따르는 것이다. 모든 신권 조직 및 보조 조직과 프로그램은 신권 협의회에서 제정한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족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가족과 개인에게는 주께서 명한 모든 일을 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나. 교회와 그 보조 조직은 가족과 개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평화를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 주는 봉사 기관이다.

다. 가정 복음 교육이란 가족이 교회와 보조 조직의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이다.

10. 가정 복음 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성임하신 경로를 통하여 가족과 개인에게 전달하는 권능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권능선이 중간에서 끊긴다거나, 복음의 권능이 다른 보조적인 경로로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성임된 위원회를 통하여

내려 온다면 완전하게 운영되는 완전한 조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음의 축복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정 복음에 대한 10개항의 헌법을 끝마치신 맥콩키 장로는 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합당한 방법으로 가정 복음을 실시하지 않았던 96명의 장로와 장로 정원회 회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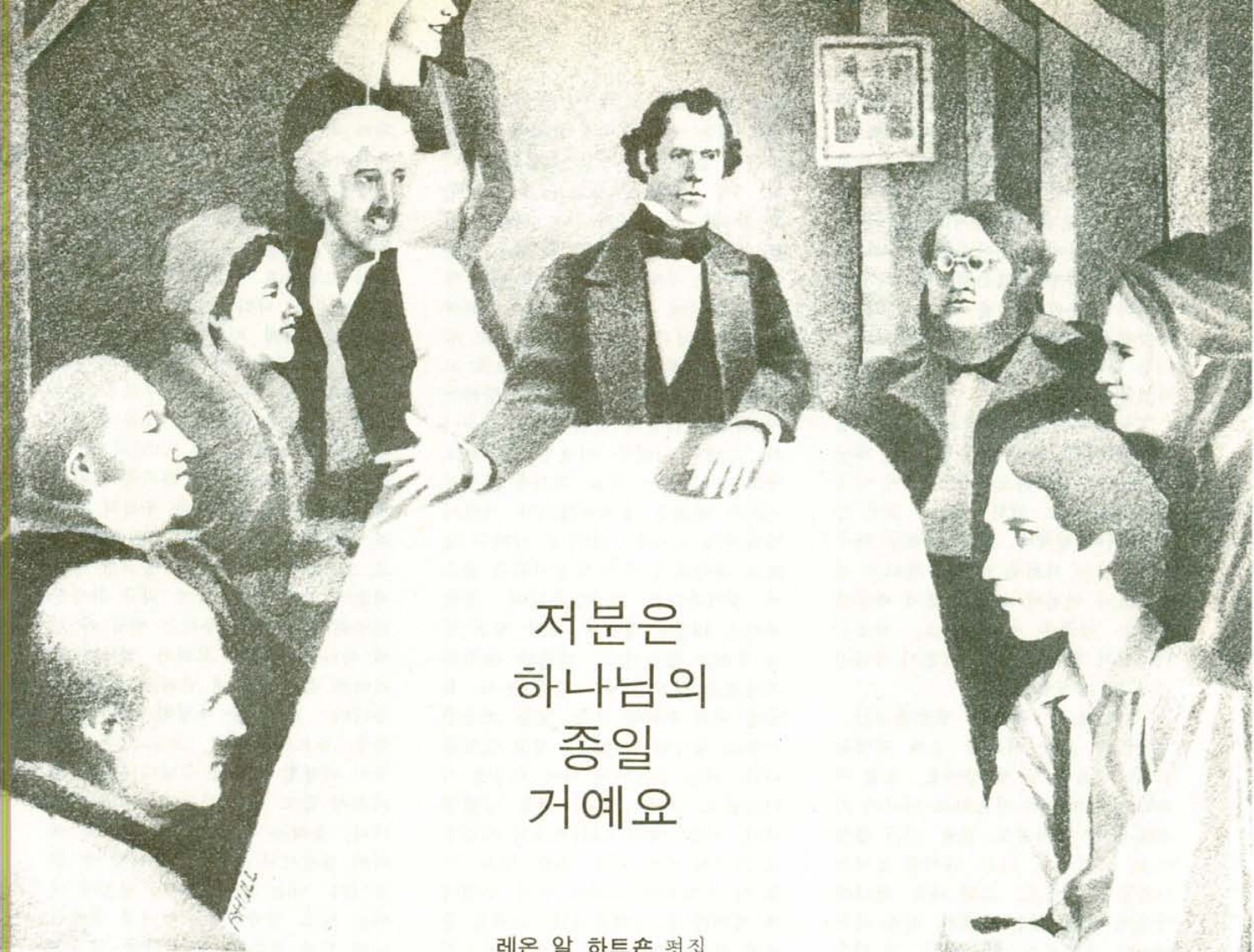
특히 정원회 회장이 정원회 회원에게 “당신은 가정 복음을 행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오류를 범했을 때 그들은 “예, 우리는 지명받은 가족을 찾아가서 가정 복음을 실시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결론짓으려면 몇 가지 기본이 되는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 복음이란 교회 전체를 돌볼 수 있는 신권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원 각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들이 완전한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 복음의 축복을 온전하게 받지 않는 한 가정 복음이 실행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권 지도자께서는 자기가 속한 스테이크에 돌아 가셔서 이 ‘가정 복음 헌법’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다시는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저분은 하나님의 종일 거예요

레온 알 하트손 편집

1974년 2월호

**1** 836년 4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 사도는 캐나다의 토론토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곳은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 많으며 “당신을 영접할 것이니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곧 교회가 사방으로 뻗어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얻게 되고 기쁨에 가득 찰 것이며, 이 선교부에서 자란 복음은 영국에까지 전파될 것이며 그 나라에서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을 들었다.

캐나다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서 여행에 보태줄 10 달러와 토론토에 살고 있는 존 테일러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받았다. 그 날 밤 테일러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성도의 빛 1974년 2월호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테일러 부인은 저를 친절하게 맞으시고는 기계상에서 일하고 계신 테일러씨를 부르러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내가 온 용건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나는 그 지방에 있는 교구 승려를 찾아 다니며 나와 내가 가지고 온 용건을 소개하는 정규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적대시하였으며 누구의 집에서든 또는 집회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토론토에 대한 나의 머리에 떠올랐던 예언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나는 시초가 매우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겁내지 않고 나는 보안관에게

법정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했으며, 당국에 공공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것도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나의 영향력과 기력은 지쳐버렸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나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소나무 숲을 찾아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나의 성공하지 못한 노력과 길을 열지 못한 무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곳에서 그의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에게 효과적인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다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존 테일러의 집에 가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이곳을 떠나려고 가방에 막 손을 대려할 때 테일러씨가 호기심에서였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서인지 몇 가지 질문을 하는 바람에 몇 분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왈튼이라는 이름의 부인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미 테일러 부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지라 곧 옆방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넘겨 듣게 되었습니다.

“왈튼 부인 오랫동안이군요, 저의 집에 미국에서 오신 양반 한 분이 계신데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하더군요. 교구 승려와 여러 당구에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번번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을 떠나려해요. 저분은 하나님의 종일 거예요. 그분이 떠나신다니 참 섭섭해요.”

“그래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오늘 목욕탕을 부지런히 청소하고 나니까 피곤해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나가고 싶다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 나는 건너편 마을에 살고 있는 동생의 집을 방문하려고 나섰지요. 그런데 이 집 앞을 지날 때 영이 내게 들어가 보라고 말했어요. 나는 돌아 오면서 둘러보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영은 지금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얼마나 잘 한 일인지 모르겠군요. 그 미국인에게 저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전해 주세요. 나는 과부이지만 그 분이 쓰실 방과 침대와 음식이 있어요. 저의 집을 그분의 집처럼 여기시고 언제라도 좋으니 큰 방 두 개를 설교 장소로 사용하라고 전해 주세요. 제가 아들 존을 여기로 보내서 그분을 모시고 오게 하겠어요. 그동안 저는 저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오늘 저녁에 저의 집으로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전해야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영으로 느낍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부인의 집에

앉아 있었으며, 많은 청중들은 응접실에 있는 커다란 책상 돌레에 앉아서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토론하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늦도록 토론을 한 후 각자는 돌아 갔습니다. 다음날 왈튼 부인은 자기의 친구 한 명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과부인데 눈의 염증으로 인하여 완전히 장님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개월 간은 심한 통증으로 고생했으며, 게다가 4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년전 콜레라로 죽고 그 후에는 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켰으나 시력이 감퇴되자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감리교 재단에서 주는 공공기금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왈튼 부인은 12살된 딸에게 내게 길을 알려 주라고 했습니다. 가련한 과부와 자녀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눈의 통증을 막기 위하여 모든 빛을 차단한 어둡고 음침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사명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시작부터 그대의 눈이 온전하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붓대를 풀고, 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였으며, 그날 저녁에는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의 눈처럼 맑은 눈으로 왈튼 부인의 집에서 갖는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왈튼 부인은 프랫 장로에게 기꺼이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내어 주었으며 그에게 쉴 곳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였다. 비로소 사업은 시작되었다. 그는 왈튼 부인의 집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했으며 곧 테일러씨와 그의 친구가 여는 구도 모임에 소개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기뻐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으며,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유함을 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지냄과 같이 침례를 받으라고 가르쳤고, 안수로 인한 성신의 은사를 약속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믿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와 물몬경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하였다. 몇 사람은 물몬경을 공부하기를 거절하였으며, 프랫 장로가 복음을 가르치고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의심했다. 바로 이때 존 테일러의 고결하고 용감한 영은 뚜렷하게 자신을 나타내었다. 그는 모여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표면상으로만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신조와 교리를 배웠으며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물몬 교리를 연구하기를 꺼리는 것입니까? 이 프랫씨는 우리의 의견과 상충하는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많이 참아 왔고 많은 회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우리는 만일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있다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프랫씨는 특별한 때에 우리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고대 사도들이 여행할 때처럼 주머니나 지갑을 가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의 교리에 대하여 경건이나 논리로 논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교리와 권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와 함께 공부할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나는 단지 공부하고 조사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가 옳다고 인정할 때 나는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고, 거짓일 때는 나도 이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 후로 존 테일러는 물몬교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는 프랫 장로가 가르치는 설교를 여덟 가지를 적어서 경전과 비교했다. 그는 또한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나는 식주 동안 이 일을 계속했으며 팔리 형제를 따라 이곳 저곳으로 따라 다녔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결과 그는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1836년 5월 9일 그와 그의 아내는 침례를 받았다. ㉔

래온 알 하트슨, 사도들의 생활 단편 모음(숏트레이크시:메저렛 출판사, 1972) 192-201페이지

## 히브리인의 예절과 풍습

시드니 비 스페리

브리감 영 대학교  
구약 언어 및 문학 담당 교수

**성**경은 실제로 동양 서적이  
다. 성경은 수세기 전에 동  
양인이 썼으며 본래 동양인을 위  
하여 씌어진 것이다.

신약은 확실히 서양어인 유럽  
의 희랍어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  
지만 예수와 그의 제자는 동양인  
이었고 동양어인 아람어를 사용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에 쓰인 언  
어에 대해 알아야 할 뿐만 아니  
라 성경상의 민족들의 예절과 풍  
습에 대하여 익혀야 한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양에서 이  
동해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급속  
히 변해가고 있으나, 내부 깊숙  
히 들어가면 아직도 아브라함 시  
대의 생활 양식과 거의 비슷한 생  
활 양식을 따르는 곳을 발견할 수  
있다. 시골 소년과 마을 소녀는  
아직도 조상들이 입던 것과 같은  
형의 옷을 입는다. 농경 생활도  
별로 변화된 것이 없으며 심지어  
인사하는 법도 성경 시대와 흡사  
하다.

그외에도 팔레스타인 원주민은  
많은 전통과 풍습을 그대로 지키  
고 있다. 예를 들면 몸짓에 있어  
서도 서양 사람들은 손으로 사람  
을 부를 때 손바닥을 위로 하고  
검지를 구부리지만 팔레스타인 사  
람들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히브리 가족에게는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재판을 집행하며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힐책 할 수 없다.

하고는 네 손가락을 전부 자기쪽으로 끌어당겨서 표시한다. 우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서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은 고개를 뒤로 젖혀서 표시한다. 우리는 성스러운 장소나 가정에 들어 갈 때 존경의 표시로 모자를 벗지만, 팔레스타인 원주민은 신을 벗는다.

서양 목자는 양을 물지만, 동양 목자는 양을 이끈다. 나는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양떼가 좁은 길을 일렬로 서서 주인을 따라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으며 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문득 문득 떠오르곤 하였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요 10 : 3-4)

서양에서는 신혼부부가 결혼 후에 가능한 한 빨리 독립 가정을 꾸미려고 애쓰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신랑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된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그녀의 조국땅에서 데려왔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창 24 : 67)었다는 사실을 유의해 보자. 리브가는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가문의 한 사람이 된 것이다.

고대 및 현대 팔레스타인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사상과 언어에 있어서 동양을 미술가에 비유한다면 서양은 건축가에 비유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동양화는 그림 전체가 진을 나타내지만 부

분적으로는 부정확하다. 그러나 서양화는 부분적으로 정확한 도표와 같은 경향이 있다. 주님께 서 겨자씨에 관해 “땅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 하셨고 자라서는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막 4 : 31-32)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양적이다. 어느 식물학자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가 작기는 하지만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며 모든 나물보다 크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워 정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 혹은 반유목민으로 생활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후에도 이전 생활 방식의 특성을 대부분 지니고 있었다.

동시대의 아랍인의 사막 생활에서 우리는 고대 히브리인의 풍습을 살펴볼 수 있다. 사막에서 나는 아랍인 족장의 후대를 받았으며 고대 족장들에 대한 성경상의 이야기를 상기시킬 기회도 있었다.

고대 히브리가족은 본디 가부장제도였다. 이것을 히브리 용어로 ‘베답’이라 하는데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이다. 아버지는 가족에 대하여 최상의 권능을 가진다. 자녀들이 자라 결혼하면 그들과 그 자녀들까지도 역시 족장의 지도하에 있게 된다. 족장이 아내를 하나 이상 두었거나 첩이나 종의 자녀들이 있을 때는 이들도 역시 다른 자녀와 같은 대우

를 받게 된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네 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났지만 모두 같은 취급을 받았다. 친혈족이 아니라 성약으로 맺어진 가족도 종이나 군속으로가 아니라 가족으로 포함이 된다.

고대에는 아버지의 권능이 생사의 문세까지 지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유다는 머느리 타마가 추잡한 행동으로 고소되었을 때 그녀에게 죽음을 명했다.

히브리 가족은 또한 지파 또는 백성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의 근원은 지파를 형성하였다. 지파 또는 백성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행하게 쓰여져 온 나라를 포함하기도 하고(야곱의 백성 혹은 이스라엘의 백성) 일부분을 말하기도 한다.(유다의 백성, 혹은 요셉의 백성)

히브리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재판을 집행하며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힐책할 수 없다. 어린 아이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은 순종과 경건의 의무를 진다. 아들은 아버지가 부르기 전에는 그의 앞에 앉지 않으며 허락없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통 장자가 그의 아버지의 위치를 물려받아 나이 많은 사람을 포함한 전가문의 가장이 된다. 그가 그 직책에 합당하지 않음이 밝혀지더라도 그는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 충의, 특전을 부여받는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아버지가 장자이외의 다른 사람을





자기의 계승자로 지명한 예가 나와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자리에 루벤이 부당한 것이 밝혀지자 요셉이 종족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다윗은 자기의 계승자로 솔로몬을 임명했다.

어떤 전위자들은 고대 히브리인 사이의 결혼은 합법적이었으며 종교 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혹간의 히브리인 중에는 그것이 사실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말일성도인 우리는 이 족장제도에서 종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히브리 가족에서는 아들이 결혼할 때 그의 아내는 부모가 택해 준다. 아직도 성경에 나오는 어느 지역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아랍인들 사이에 종종 성행되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 히브리인의 예절과 풍습에 열광적인 탐구자이며 나의 교수이셨던 루드비히 콜릭 박사는 히브리인이 열 아홉에 아버지가 되고 서른 여덟에 할아버지가 되며 쉰 일곱살에 증조부가 된다고 늘 말하곤 했다. 간혹 이보다 늦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 이삭이 그 예인데 그는 마흔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기 땅 관리인의 영적인 중매로 리브가를 선택했다.

한 젊은이의 아내로 택함을 받은 여자는 모하라 하는 얼마간의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나 신부 자신이 받게 된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 지참금은 그녀를 보호하게 된다. 이 지참금은 신부의 가족이 신부가 없었으므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거나 밭에서 일할 일손의 손실을 본데 대한 배상으로 지불된다고 볼 수 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 중에는 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한 것에 대한 기사는 아브라함이 그땅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며, 고대에는 가격 협상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적으로 결혼에 세 단계가 있었다. 첫째 약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남녀가 다 어리더라도 할 수 있다. 중매는 부모들 자신이 하거나 전문적인 중매장이 한다. 이럴 때 상대방은 서로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젊은이를 놀라게 하겠지만 결혼을 아주 진지한 단계로 간주하며 인간의 정욕이나 경솔한 행동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약혼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받아들여 싫어하지 않는 한 혼약이 비준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유태인들은 약혼을 철저히 묶어놓는 것으로 간주한다. 1년동안 부부는 결혼의 권리없이 남편과 아내로 간주된다. 약혼은 오직 이혼으로서만 종말지을 수 있다.

세째 단계인 결혼은 약혼한 해가 지난 다음 치른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히브리 여인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예언자 이사야는 미혼 여성에 대해 남자에게 인용하여 말하면서 이러한 느낌을 반영시켰다.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이 4:1)

갓 결혼한 히브리인 부부는 자녀를 낳기를 열망하는데 특히 아들을 바란다. 시편 작가의 다음 귀절에 유의해 보면 알 수 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 127:3-5)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 것으로 생각하여 마음에 심히 애통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창 30:1)

동양의 다른 풍습 하나는 물건 값을 깎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상점을 하고 있는 나의 친구는 물건 값을 깎는 것을 전혀 몰라서 본래 보다 몇배나 비싸게 사가는 미국인과 거래하면 도무지 재미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상인이 먼저 제안한 가격이 결국 팔리는 값이 되는 예는 거의 없는데 나의 경험을 두가지 말하고자 한다. 나는 전통적인 팔레스타인 의상을 사러 예루살렘 상점으로 갔다. 내가 물건을 고르자 아랍인 점원이 미국 돈으로 내게 가격을 말했다. 약 십분 동안 값을 깎아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상점은 나설 때는 본래 가격의 삼분의 일을 지불했던 것이다.

또 한 번은 내가 알제리아 항구의 기선을 타고 있었던 때인데 아랍인 하나가 어깨에다 들면서 쓰는 안경을 여러 개 짚어지고 갑판위로 올라왔다. 그 중 하나는 아주 멋있는 독일제 안경이어서 나

는 가격이 괜찮으면 그것을 사려고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반 시간 동안 맹렬히 가격 협상을 했다.

결국 나는 멋있는 가죽 케이스까지 합쳐서 본래 가격의 반 이하로 깎아서 샀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아랍인은 이익을 얻었으며 이익이 없었다면 결코 나에게 팔지 않았을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땅을 그 땅 속의 굴에다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사는 이야기는 고대 가격 협상의 장면을 실제로 묘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친구 헛타이트족에게 자기가 에브론에게 “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했는데 에브론이 일어나 한 발 다가서서,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창 23:9-11)

독자들은 대부분 에브론이 가장 친절하고 인정있는 사람이라서 땅과 굴을 아브라함에게 거저 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사실상 그의 말은 손님에게 대하는 예의있는 태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은 에브론이 땅값으로 제안한 사백 세겔을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 23:13-16)

고대 근동지방의 예절과 풍습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

#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약의 축복

## “하나님의 벗”(약2 : 23) 믿는 자의 아버지(갈3 : 8-9)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며 완벽한 신앙 생활의 예가 되고 있다. 노년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님께서 성약을 이루기 위하여 합법적인 상속자를 주어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창15 : 1~6) 그들은 이내로 잠았으며 결국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아 그로부터 수많은 후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창 21 : 1~3, 히 11 : 11~12) 아브라함은 실제로 후손을 위한 상속의 땅을 생전에 받지 못했으며 그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으나, (히 11 : 8~10, 13~16) 그러한 상속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부활하리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창 15 : 9-13, 영감역 8 : 56) 장자 상속권을 가진 이삭을 희생으로 바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창 22 : 1~19)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약 2 : 21-22)을 나타낼 기회를 받았으며 그의 순종심은 “의롭다 하심을” (교성 132 : 36) 입게 되었다.

이러한 큰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뿐 아니라 (히 11 : 17-19)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속죄를 아주 강한 개인적 느낌으로 배웠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받았으나 저가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계시와 계명 곧 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하여 저는 저의 승영에 들어가 자기의 보좌에 앉았느니라.” (교성 132 : 29) 또한 아브라함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보석”이 될 사람은 “자기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받은 아브라함처럼 징계를 받고 시험받을 필요가 있는니라” (교성 101 : 4)

	축복에 대한 성구			해설	아브라함의 축복과 말일성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스라엘)		
<b>I. 약속된 땅의 축복</b> “...낫친 땅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역을 베푸는 자가 되게하리니, 네 자손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땅을 저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리라.” (아브라함서 2 : 6)	창 12 : 7, 13 : 15, 15 : 9~14 (영감역, 창 15 : 7, 18 17 : 8, 24 : 7)	창 26 : 3~4	창 28 : 4, 13 48 : 4	아들 요셉에게 내린 축복중에 야곱은 그의 후손을 위해 다른 땅을 약속했으며 (창 49 : 22-26, 이 13 : 2, 7-8) 잔류민이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46 : 24-25) 요셉의 후손은 이 땅으로 인도될 것이며 (니달 2 : 20) 이 땅은 주님을 섬기니(이 2 : 12) 모든 백성에게 성별될 것이다(나이 1 : 6-7 10 : 10~11, 니삼 15 : 13, 이 2 : 7)	미주리주 잭슨군에 “약속의 땅”-새 예루살렘의 중심지로 지정되었다. (교성52 : 42, 57 : 1~3, 84 : 2~5) 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집합할 것이다. (교성 109 : 64) 진실한 자는 해의 영광의 상태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교성 45 : 58, 56 : 20, 63 : 20)
<b>II. 후손의 축복</b> “...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아브라함서 2 : 9)	창 12 : 2, 18 : 18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 큰 나라”가 또한 약속되었다.(창 16 : 10, 17 : 20, 21 : 13 교성 132 : 34)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는 아들 여섯을 낳았는데 이중 미디안과 그의 후손은 특히 그 수가 많은 것으로 언급되었다. (창25 : 1~4, 졸 3 : 1, 교성 84 : 6) 일반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족의 대부분을 이루며 미디안의 후예도 또한 일부를 이룬다고 인정되고 있다.	“... 나의 군대를 강대하게 만들고...” (교성105 : 26, 31~32)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찌라” (창 17 : 4-6, 16)	아브라함서 1 : 2				
“...나는 너를 번성케 하리니 너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을 번성케 하여 이같이 되게 하리라... 무래 알을 생	창 13 : 16 15 : 5, 17 : 2 22 : 17	창 24 : 60 24 : 4, 24 : 35 11, 48 : 4	창 28 : 3, 14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다. “... 그 후손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밖에서도...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을 것이니...” (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다. “... 그 후손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밖에서도... 별과 같이 수없이

<p>있으리라" (아브라함서 3:14)</p>	<p>라. "... 열왕이 네게로 찾아 나리라" (창세기 17:6, 16)</p>	<p>장 35:11</p>	<p>"홀"과 지리자의 권리가 유다와 그의 후손에게 약속되었다. (창 49:9~10) 유다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혈통에 태어난 가장 위대한 왕은 이스라엘 왕이었던(요1:49) 예수 그리스도였다. (마1:1, 17, 눅1:68~72)</p>
<p><b>III. 신권의 축복</b></p>			
<p>라. "... 너를 위하여 나의 이름 곧 네 부친의 신권을 네게 임하리라" (아브라함서 1:18)</p>	<p>나. "...너는 네 자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은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을 지니리라" (아브라함서 2:9)</p>	<p>창 17:7, 19 아 1:3~4</p>	<p>창 17:9, 21:12</p>
<p>라. "...이 관능은 너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네 후손(문자 그대로의 후손이냐 몸에서 나온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서 2:11)</p>	<p>라.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서 2:11)</p>	<p>창 12:3</p>	<p>신권을 행사하는 자는 공의롭게 축복을 주거나 저주할 권한이 있다(교성75:18~22, 132:47)</p>
<p>라. "...네 성언을 통하여 나의 이름이 영광토록 세상에 알려지리라" (아브라함서 1:19)</p>	<p>라. "나는 네 이름을 통하여 자들을 축복하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해아림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서 2:10)</p>	<p>창 28:13</p>	<p>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창 3:6, 13~15, 4:5, 마22:32, 요 8:56~58, 니골 19:10, 교성136:21)</p>
<p><b>IV. 구원과 승영의 축복</b></p>			
<p>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교성 103:17 모사이아 5:7절조)</p>	<p>복음을 받아들이므로써 개인의 삶에 성신이 임한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성신이 임할때 평온한 것처럼 이방인에게 성신의 영향이 임할때는 그의 온 정신과 육체가 맑은 예지로 뒤여 그의 옛 피를 없애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 들어진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9~50)</p>	<p>창 26:24</p>	<p>"...조상의 혈통을 따라 대대로 이어 내려온 신권을 지닌 너희에게 ... 너희는 육체로는 정당한 상속자요" (교성86:8~9)</p>

<p>나. "...네 이름이 만국 백성 가운데서 크게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서 2 : 9)</p>	<p>창 12 : 2</p>		<p>1836년 4월 3일 일라이어스는 커틀랜드 신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복음의 신라시대를 맞이했다." (교성110 : 12) 이 일라이어스는 노아였다(조셉 필딩 스미스, 대화 보고 1960년 4월 72페이지 참조) 그는 아브라함 이전의 다른 족장들이 소유했던 것처럼 아담(모세서 5 : 58, 6 : 51~52)과 자기 가 소유했던 복음의 축복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와 후손의 업적으로 하나님 의 이름과 복음이 "영원토록 세상에 알려지고"(아브라함서 1 : 19)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축복을 받았다.</p>	
<p>다. "...일어서서 너를 저들의 조상으로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서 2 : 10,</p>				
<p>라.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창세기 18 : 19)</p>	<p>창 17 : 9 (영감역, 창 17 : 4-7 11-12)</p>	<p>롬 9 : 13</p>	<p>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관계는 세대를 통하여 대대로 자신에게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 (롬9 : 6-7)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찌어다." (갈3 : 7) 복음의 약속은 의로써만 얻어진다 (롬 4 : 13)아브라함의 자녀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한다 (요 8 : 39)</p>	<p>"누구든지 증실하여...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나..." (교성 84 : 33~34)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아브라함의 사업을 행하라. 나의 율법에 참여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교성 132 : 32)</p>
<p>마. "...너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서 2 : 11)</p>	<p>창 12 : 3, 18 : 18, 22 : 18</p>	<p>창 26 : 4 창 28 : 14</p>	<p>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복음 메시지는 지상의 모든 가족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21페이지 고전 15 : 22) 아브라함의 자손(이스라엘)이 열국으로 흩어져(신 4 : 27, 28 : 64, 레 26 : 33)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과 (갈 3 : 14) 열국에 미치게 되었다 (니hil 15 : 16-18, 야 5 참조)</p>	<p>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손으로 이루어진 회복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권속"에 복이 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단 것이다. (교성 124 : 58)</p>
<p>바. "...헤아릴 수 없이 너를 축복하여...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서 2 : 9, 11)</p>	<p>창 12 : 2</p>		<p>예언자들은 복음이 회복되고(니hil 22 : 4-9, 니hil 20 : 27, 21 : 1-7), 성약이 새로이 맺어지리라는 것과 (교성 1 : 17, 22-23, 신 4 : 31, 렘 31 : 31-34에 37 : 24-28) 이 일을 수행하는데 도구로 사용될 사람들 예언했다. (니hil 3 : 4-21)이스라엘 가문의 집안은 회복사업의 일부이다. (신30 : 1-5, 니hil 14 : 7 15 : 12-16)</p>	<p>천국(신전)결혼의 성약을 맺고 합당한 자와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자는 승영을 얻고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며 ...신이 될 것"이다. (교성132 : 19~20, 교성132 : 29~31 참조)</p>

# 아브라함의 여행과 그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

(연대)

## 1 초기 시절

아브람은 신앙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땅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그의 생명을 건졌다. 그 땅에 기근이 닥쳐 그의 동생 하란이 죽었다. 아브람은 하란의 딸 사래와 결혼하였다. (창 11 : 26, 28, 29 ; 아브라함서 1 : 1~20 ; 2 : 1, 2)

## 2 하란으로 여행함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한 마을을 발견하고 그곳을 동생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 불렀다. 복음을 받아 들인 아브람의 부친 데라는 또다시 우상을 숭배했다. (창 11 : 31 ; 아브라함서 2 : 4, 5)

## 3 “약속의 땅”으로 여행함

그들은 세겜 땅으로 내려 가 벨엘 (주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낸 곳)과 아이사이에 있는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창 12 : 1, 5, 6, 8 ; 아브라함서 2 : 6, 14~20)

## 4 애급으로 계속 여행함

기근으로 인해 그들은 잠시 동안 애급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아브람은 애급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말하라는 명을 받았다. (히브리인의 관습에 의하면 자기의 질녀를 누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한 일이었음) (창 12 : 9~12 ; 아브라함서 2 : 21~25)

## 5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 옴

아브람은 처음에는 벨엘 근처에서 살았다. 번성하였으므로 가족과 양떼를 아브람의 것과 조카 롯의 것으로 분리시키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아브람은 남방으로 옮겨 헤브론에 정착하였다. 롯은 요단 평야에 그대로 남았다. 그곳은 싯딤 골짜기와 싯딤 성읍까지 이르는 곳이었다. (창 13 : 1~12, 18)

## 6 북방 나라의 왕들이 침략해 옴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연합하여 아브람이 거하는 땅 동편에 있는 땅을 침략했다. (창 14 : 1~12)

## 7 롯을 구출한 아브람

아브람은 침략을 당했을 때 사로잡혀 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였다. 아브람은 살렘 근처 사웨 골짜기에서 싯딤 골짜기의 백성에게 전리품을 돌려 주었다. (창 14 : 13~17, 21~24)

## 8 헤브론에 거한 아브람

주님은 아브람에게 그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설명하신다. (창 15 : 1~7, 18 ; 위치를 알기 위해서 민수기 34장 1~12절과 신명기 1장 7절을 참조하기 바람.)

침례의 성약이 다시 강조되고 할례의 성약이 소개되다.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많은 무리의 아비를 뜻함) 사래의 이름은 사라 (왕비를 뜻함)로 바뀌다. (창 17 : 1~16 ; 영감역 창 17 : 1~12 참조)

## 9 “남방”에서 이곳 저곳으로 이사한 아브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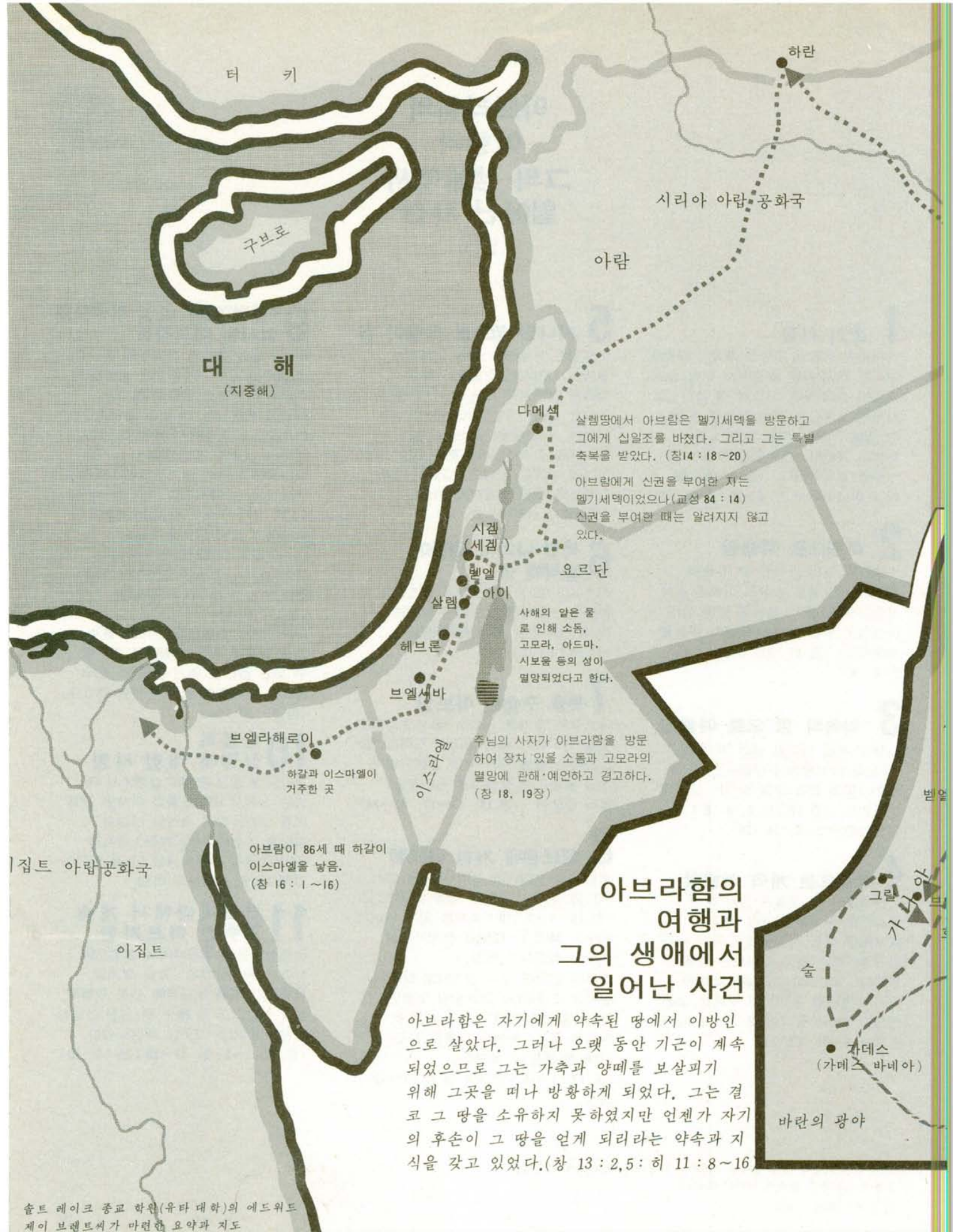
아브라함은 한동안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서 임시 거주자로서 살았다. 아비멜렉 왕과의 경험은 처음에 애급을 방문했을 때 얻은 경험과 비슷하다. (창 20장) 바로 이곳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다. (창 21 : 2~3, 5 ; 17 : 17) 이삭의 장자의 명분이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분리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 (창 21 : 9~21)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근처로 옮겨 가서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그 땅의 통치자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었다. (창 21 : 31~34)

## 10 순종과 신앙에 대한 시험

모리아땅(살렘 곧 예루살렘에서)에 있는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에 속죄와 비슷한 경험을 가졌다. (창 22장 ; 위치를 알기 위해서 야곱서 4장 5절과 역대하 3장 1절을 참조하기 바람.)

## 11 브엘세바에서 계속 거주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으며 사래가 죽자(127세) 그는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다. 그 후 38년 뒤 그는 그녀가 매장되어 있는 그곳에 매장되었다. (창 23 : 1~2, 9, 17~20 ; 25 : 7~10)



터 키

구브로

대 해  
(지중해)

시리아 아랍 공화국

아람

하란

다메섹

살렘땅에서 아브람은 멜기세덱을 방문하고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다. 그리고 그는 특별 축복을 받았다. (창 14 : 18~20)

아브람에게 신권을 부여한 자는 멜기세덱이었으나 (교성 84 : 14) 신권을 부여한 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시켄 (세켄)

우르단

헬엘

사해의 알은 물로 인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시보울 등의 성이 멸망되었다고 한다.

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주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장차 있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해 예언하고 경고하다. (창 18, 19장)

브엘라해로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주한 곳

아브람이 86세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음. (창 16 : 1~16)

집트 아랍 공화국

이집트

## 아브라함의 여행과 그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된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근이 계속 되었으므로 그는 가축과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 그곳을 떠나 방황하게 되었다. 그는 결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였지만 언젠가 자기의 후손이 그 땅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과 지식을 갖고 있었다. (창 13 : 2, 5; 히 11 : 8~16)

그릴

술

가데스 (가메즈 바네아)

바란의 광야

솔트 레이크 종교 학원 (유타 대학)의 에드워드 제이 브랜트셔가 마련한 요약과 지도

# 스미스 대관장께서 그의 팔을 잡으셨다.

**열**

한 살된 존 루드프는 네덜란드의 룩텔담에 살았다. 그는 학교와 교회에 다녔고, 친구들과 과도 재미있게 놀았으며, 소년들이 즐기는 일은 빼놓지 않고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통스런 눈병을 앓아 시력을 잃게 되었다. 학교도 갈 수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었다. 친구들과 놀 때도 잘볼 수가 없었다. 그는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어느날 네덜란드에 있는 말일성도에게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방문하리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존은 이 일에 대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는 지상에서 제일 큰 권능을 가진 분이지요. 그러니 저를 그모임에 데려다주세요. 그분이 저를 보시면 틀림없이 저를 고쳐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에 모임이 끝난 후 스미스 대관장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일일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기 위해 조그마한 예배당의 뒤로 가셨다. 루드프 자매는 봉대로 눈을 감은 존을 데리고 존경하는 지도자에게로 다가갔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눈 먼 소년의 손을 잡으신 다음 부드럽게 봉대를 들어 올려서 고통이 가득 고인 눈을 바라 보셨다. 예언자는 존을 축복해 주신 다음 그가 다시 시력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집에 도착하자 존의 어머니는 의사가 시켰던 대로 봉대를 풀고 눈을 물로 씻겨 주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존이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엄마, 눈이 이제 뻤썸은 것 같아요. 잘 보여요—멀리까지도 보여요. 아프지도 않아요!”



# 금 판

마가렛 시 리차즈, 캐롤 시 매드슨 작 하워드 포스트 그림.

“금판”이라는 노래는 그 내용 이야기를 생각하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가족이 함께 가정의 밤에서 이 게임을 하고 다같이 노래를 부르면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

로우즈 토마스 그래함

제이 스펜서 콘월  
마가렛 시 리차즈 편곡

1. 금 판 이 깊 - 이 - 산 에 숨 기 워 있 었 네 하  
2. 옛 날 선 지 - 자 - 니 파 이 만 들 었 던 기 록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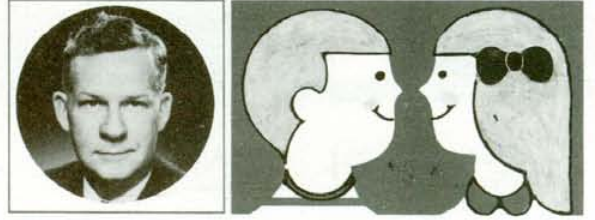
나 님 비 밀 알 게 할 자 람 찾 - 기 까 지  
문 경 의 이 야 - 기 우 리 들 - 어 아 내



# 사도가 어린이에게 주는 말씀



1974년 2월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아무 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면 노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가족에게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비극, 불행, 낙망이나 세상의 어떤 처지에 있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비하시키므로써 자기에게 크게 불공평한 대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스스로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규정을 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머리를 쳐들고 팔을 뻗쳐 그분과 함께 걸기만 하면 우리를 세워 주시고 인격을 형성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을 통하여 내부에 부여된 참된 잠재력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분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이 주어질 때 “그게 무슨 소용이람, 난 아무 쓸데 없는 사람인걸”하고 종종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름없는 소년, 소녀, 남자, 여자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딸이며, 그분은 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

기기에 금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게임이 나온다. 첫째 항목과 관계되는 것을 둘째 항목에서 골출로 연결한다.

- |                              |                 |
|------------------------------|-----------------|
| 요셉 스미스가 금판을 받은 장소            | 가. 물몬경          |
| 요셉이 금판을 받은 날짜                | 나. 올리버 카우드리     |
| 금판을 묻은 고대 예언자                | 다. 1829         |
|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의 사가 기록된 곳         | 라. 1823년 9월 21일 |
| 물몬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의 이름         | 마. 구모라 언덕       |
| 판이 처음 문혔을 때                  | 바. 모로나이         |
| 물몬경이 출판된 때                   | 사. 금판           |
| 모로나이 천사가 요셉 스미스를 처음으로 방문한 날짜 | 아. 니파이          |
| 번역된 판을 뭐라고 부르나               | 자. 1827년 9월 22일 |
| 요셉 스미스가 판을 번역할 때 서기로 일하던 사람  | 차. 기원전 400년     |



## 친구가 친구에게

데오도어 엠 버튼  
십이사도 보조

### 할머니가 주신 교훈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서 하룻밤 지낸 적이 있다. 할머니는 시골에 사셨으며, 나는 집밖에 나와 뛰노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주의를 주셨다. “병아리를 품고 있는 빨간 닭을 조심해라. 너무 가까이 가면 새끼를 해치려는 줄 알테니까.”

“알았어요 할머니.” “조심하겠어요.”하고 나는 약속

영광  
1974년 2월호



했다.

그러나 어미 닭과 노란 새끼 병아리를 보자 나는 약속한 것을 잊었다. 병아리들이 어찌나 귀엽고 숨털같은지 나는 몸을 굽혀 그중 하나를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다. 자그마한 병아리가 내다 보더니 곧장 달아나고 말았다. 그러자 어미 닭이 내게로 날아와서 손을 쪼았다. 나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갔다.

할머니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꼭 껴안아 주셨다. 어느 정도 진정되자 할머니는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셨다.

“난 그냥 병아리가 내 생각대로 보드라운가를 알고 했어요.” “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만져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늙은 어미 닭이 나를 쪼았어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지만 어미 닭은 네가 병아리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겠니?” 하고 할머니가 물으셨다. 네가 병아리보다 크니까, 어린 병아리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를 쪼았겠지, 쫓아 보낼려고.”

그런 다음 할머니는 뜰에 나가 놀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끼와 같이 있는 어미 닭 근처에 가지말라고 주의를 주셨다. 또 다른 주의도 주셨다. “어미 거위 근처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말렴, 새끼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위는 어미 닭 보다도 더 크니까 새끼를 만지려고 했다가는 이번엔 정말 다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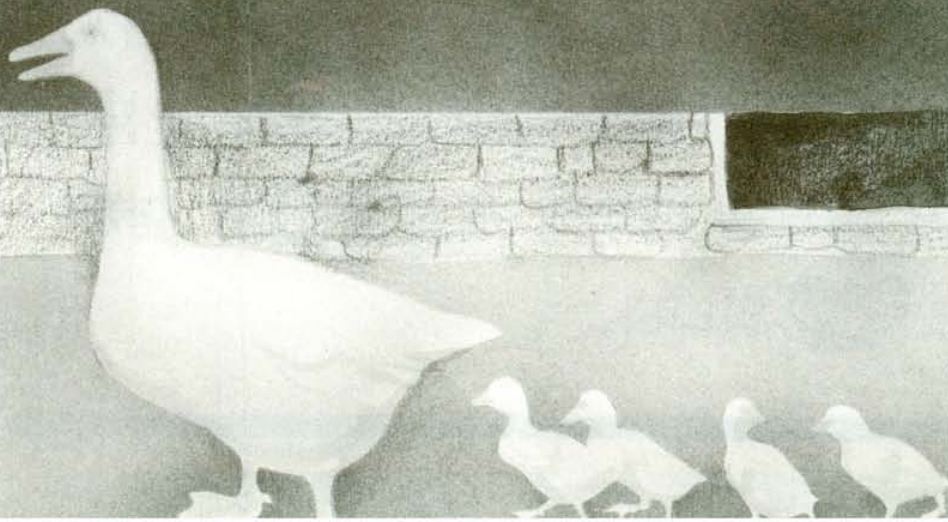
“만지지 않겠어요, 할머니.” 하고 나는 약속했다.

다시 뜰에 나가 어미 닭을 피해서 있었다. 그러나 곧 나는 어미 거위 뒤에 새끼 거위가 나란히 떠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좀더 자세히 볼 욕심으로 가까이 갔다.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가자 어미 거위가 큰 날개를 펴고 긴 목을 뻗치고 부리를 열며 내게로 오면서 췌 소리를 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할머니께 거위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란다.” 하고 할머니가 설명하셨다. “그리고 자식을 보호해 주지, 어미 닭이나 어미 거위가 그래서 그러는 거란다.” 그런 다음에 할머니는 나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셨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만 너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해 주신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언자를 두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있단다. 이 예언자에게는 보조자가 많이 있는데 스테이크 부장단, 감독단, 가정 복음 교사, 초등학교나 주일 학교의 너의 반 선생님 같은 분들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어린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 “주는 이몸을 사랑해요”를 부를 때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곤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 하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말씀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 ㉮

























U. HARSTE



# 리자가 배우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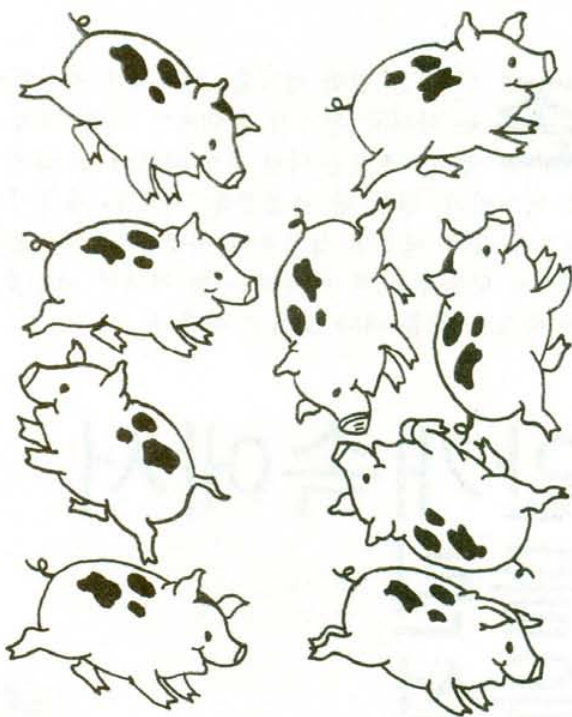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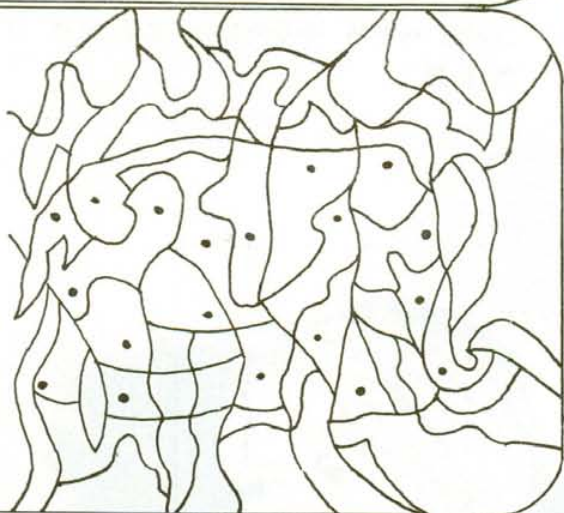
메어리 앨렌 줄리

이 사람은  에요. 이것은  가 주일학교와 초등협회에 나가는  에요. 이것은  가 주일학교에 참석할 때  를 여는  이에요. 이 사람은  가 주일학교에 참석할 때  의  옆에서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하시는  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 주일학교에 참석할 때  의  옆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는  을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 주일학교에 참석할 때  의  옆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을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에게서 공부를 배우기 위하여  와 함께 교회에 오는  입니다.

# 심심풀이

점이 있는 공간을 색칠하여 큰  
꼭마단 동물을 만든다.



똑같은 돼지를 골라 색칠하십시오.



점잇기

가족찾기



**존** 이 집을 향해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는 안개와 연기가 혼합되어 숨이 막힐 정도였다. 소년은 이런 비상 사태에 쓰라고 웨스트 아저씨가 빌려 준 초롱불을 켜려고 움추리고 앉았으나 습기 때문에 성냥불이 자꾸 꺼졌다. 존은 일어서서 방수복을 꼭 여미고는 늦 저녁의 어두움과 안개 속으로 앞을 내다 보려고 애썼다.

내가 널 데려다 주러 왔다.”고 말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웨스트씨가 온 것이다.

그 어린 소년은 후에 교회 삼대 대관장이 된 존 테일러였다. 그는 팔십 세까지 살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외롭고 안개질은 저녁 두려움을 안고 기도했을 때 것처럼 빠르게 응답되었던 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㉞

# 안개속에서 들린 음성

그날 일찌기 그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가족이 살고 있는 영국의 밀른드롭에서 북쪽으로 삼 마일 떨어진 곳에 외로이 살고 있는 늙은 양치기 아저씨에게 음식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웨스트씨 댁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으므로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재빨리 일어나 그곳을 떠났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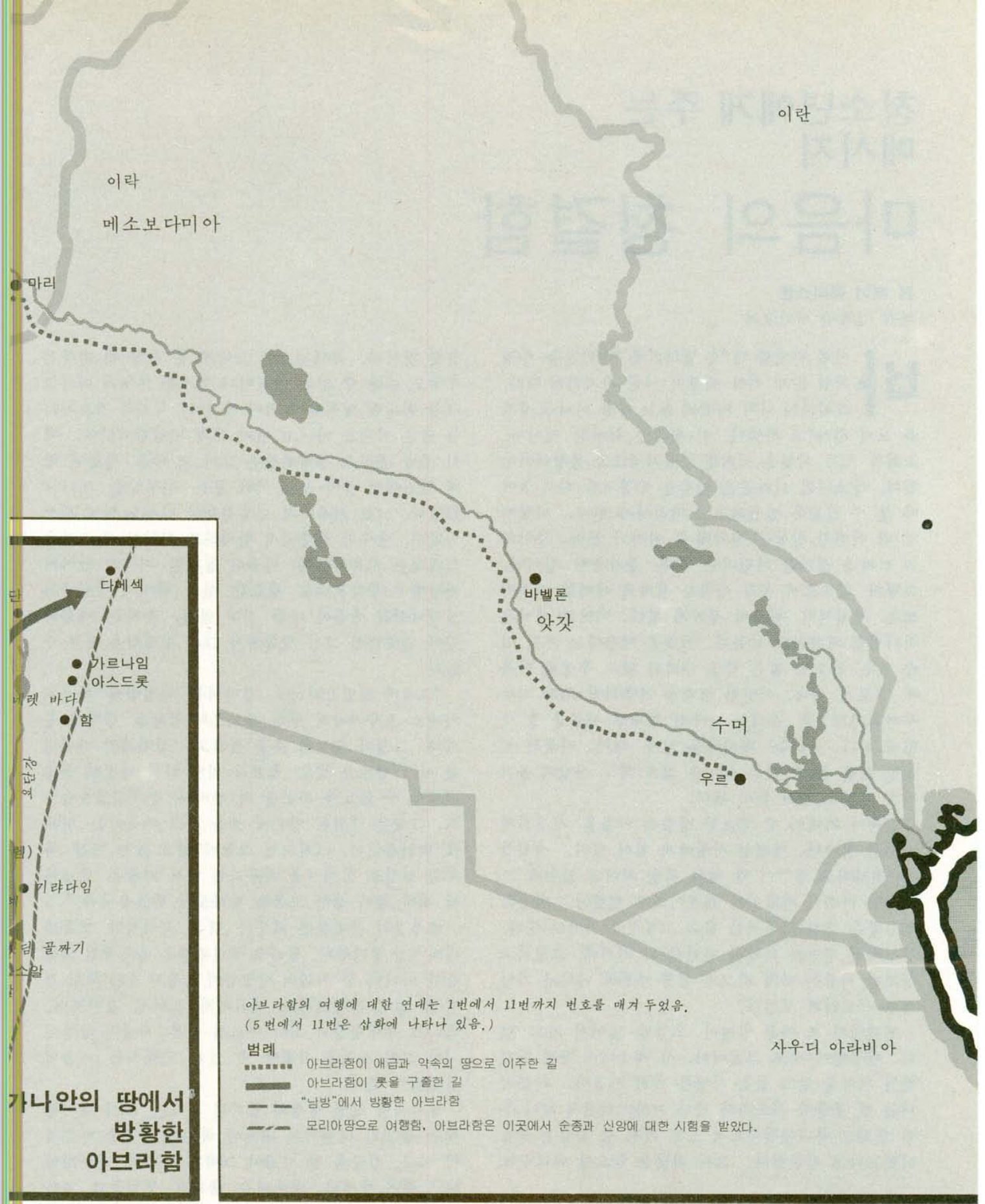
웨스트씨는 존에게 밀른드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으나 존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 온 건 처음인데요, 만일 아저씨가 집까지 바래다 주신다면 어머니가 다시는 혼자 오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하고 존은 말했다.

그러나 존은 지금 웨스트씨가 함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두껍게 내려 깔린 안개 속에서 갖가지 이상한 소리와 형상이 떠오르곤 했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갑자기 그는 막다른 집 같아 보이는 큰 철문에 이르렀다. 문안에서는 개가 무섭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존은 놀라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때 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때때로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존은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했다. 그러는 동안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잠시 후에 안개 속에서, “조니야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이란

마리

바벨론  
앗갓

수머

우르

다게섹  
가르나임  
아스드롯  
하란  
레벳 바다  
오단강  
기라다임

림 골짜기  
소알

사우디 아라비아

아브라함의 여행에 대한 연대는 1번에서 11번까지 번호를 매겨 두었음.  
(5번에서 11번은 삽화에 나타나 있음.)

- 범례**
- ..... 아브라함이 애급과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길
  - 아브라함이 쫓을 구출한 길
  - "남방"에서 방황한 아브라함
  - 모리아땅으로 여행함,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순종과 신앙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

**가나안의 땅에서  
방황한  
아브라함**

# 청소년에게 주는 메시지

## 마음의 청결함

본 제이 페더스톤

관리 감독단 제이보좌

**바** 이런 비킹함 경\*은 말하기를 “내마음을 수정처럼 맑게 하여 세상이 나를 시기하게 하라. 그리하여 나의 마음에 있는 가장 더러운 생각을 보게 하라”고 하였다. 이 원리는 위대한 것이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청소년인 여러분은 마음을 수정처럼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일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점차로 어떠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반응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다. 이것은 처음에는 거의 알 수 없는 정도로 엷은 막을 우리의 맑고 투명한 마음에 두르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거듭하면 차차 막은 두꺼워지고 곧 우리는 순수한 형태로 사물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판단력을 잃게 되며, 사물의 진실한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고 사탄의 울가미에 점차로 말려 들게 된다.

우리가 지녀야 할 중요한 성품은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는 것이다. 청결한 사람에게 힘이 있다. 사람들은 겔라하드 경\*\*이 열 명의 힘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음의 청결함은 또한 정신적인 힘과 고결성을 가져다 준다. 정신적인 갈등과 타협이 만연한 이 시기에 고결하고 청결한 사람은 마치 피그미 인종 가운데 나타난 거인처럼 두드러져 보인다.

청결함의 또 다른 일면이 오늘날 잃어져 가고 있다. 단정함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상에서 참된 단정함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최근에 나는 한 훌륭한 지도자와 만나 이야기하면서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에게서 느낀 가장 큰 감명은 무엇이었느냐고 질문했다. 그의 대답을 들으면 여러분도

놀랄 것이다. 부대관장이 그에게 준 가장 큰 감명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식이나 명석한 두뇌가 아니고 그의 위대한 영적인 능력이 아니며, 국가의 지도자라는 높은 지위도 아니고 단지 그의 단정함이었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그의 또 다른 성품과 함께 인간에서 찾아 보기 극히 힘든 단정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의복에서 단정하듯이 마음도 맑고 깨끗하였다. 순수한 표준에서 한치라도 이탈할 때 그것은 그에게는 치욕이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있어서 단정함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설교 중에서 구세주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것이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의 말씀에서 그의 단정함을 엿볼 수 있다.

“그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단정함을 마음에 가지고 호수가에서 당한 베드로의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주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의 가룟대들 어깨 밑으로 끌고 들보를 지게 하여 자신의 몸도 지탱할 수 없도록 하였을 때 얼마나 분개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양손에 못을 박고 다음에는 발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혹독한 형벌로 십자가를 세우고는 먼저 파놓은 구덩이에 세워 놓아 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예수가 겪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단정함이 노출된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경험까지도 예리하게 느끼신 것이었다. 클라크 부대관장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공과의 저자인 로이 웰커형제는 총관리 직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질문을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 “웰커 형제님, 형제님은 총관리 직원들과 가까이 일하고 계시지요. 그들 중에서 가장 형제님께 감명

\* 영국 시인

\*\* 가장 청렴하였음. 아서왕의 모든 기사 중에서



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그분들 모두 훌륭하신 분이지요. 그러나\_\_장로님이 가장 제게 감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젊은이들이 따라야 할 청결함을 지니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사인가. 우리도 모두 이와 같은 찬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은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딤후 1:15)라고 말씀하셨다. 청결이라 함은 이물질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좋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을 생활에서 제거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구세주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보기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목적을 향하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니삼 12:3)라고 말씀하셨다. 물몬경에 보면 이 말씀은 “내게 이르는 자”라는 말이 첨가되어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를 의미한다.

“애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겹세마네에서 고난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청결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5절) 우리는 영혼을 승화시키고 높이는 모든 일에 관한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 (6절, 부가 설명을 위한 참조 성구 물몬경 니삼 12:6) 우리가 합당할 때만 성신이 우리에게 거할 것이다.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계속하여 영감과 지시를 받게 되

며, 이를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진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7절) 1946년 10월 대회에서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음이……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끄는 힘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몇년 전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내가 부름을 받은 높은 직분에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나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때에 나는 마음의 평화와 지시와 위로와 영감을 받았고, 그 영감은 내게 앞으로 올 일을 말해 주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대회 보고, 1946년 10월, 146페이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 어찌 우리가 친절하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가진 우리가 어찌 소문을 퍼뜨리고 남을 비판하겠는가? 어찌 우리가 단정하지 못한 의복을 입거나 더러운 생각을 하겠는가? 어찌 우리가 예언자께서 하시는 일을 못하겠는가?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비의 성품이다. 위의 방식대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구세주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8절)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길은 곧고 험착하여 그 곳을 찾는 이가 드물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그 길이 열려 있다.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은 영혼을 적셔 주는 노력의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은 복음의 진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가족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전에서 살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되도록 마음과 영혼을 바쳐 노력하기 바란다.

# 질문의 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성약의 방주란 무엇이며, 오늘날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합니까?”



대답/브란트 형제

**이** 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풀려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세는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까지 사용할 이동식 신전인 장막을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교성 124 : 38)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지자 주께서는 그들에게서 신권과 의식의 충만함을 거두어 가셨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오직 소신권만 남겨 두셨습니다. (교성 84 : 17-27) 장막은 이때에 이 소신권으로 행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성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막의 모양이나 실내 장식에 관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며 일단 완성이 되면 주님과 주께 대한 봉사에 헌납되었습니다. 그런 후로는 이스라엘의 권능이 있는 신권 소유자만이 이 이동식 성소를 운반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막의 실내 장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약의 방주인데 경전에서는 이를 증거의 방주, 주님의 방주, 주님의 성약의 방주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 1.2미터 세로 75센티 높이 75센티의 금으로 도금한 아카시아나무 껍데기였습니다. 모서리에 고리가 달려서 이 금 도금이 된 고리는 운반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금궤에는 뚜껑이 있는데 (이를 '속죄소'라 부른다) 여기에는 서로 마주 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출 25 : 10-22) 궤 안에는 증거판을 두었으며 이 판에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출 26 :

16, 신 10 : 1-5, 영감역) 그 외의 성스러운 보관물을 때때로 보관하였습니다. (히 9 : 4-5 ; 왕상 8 : 19)

이 방주 궤는 장막 안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 — 거룩한 곳에서도 거룩한 곳에 두었습니다. 이 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대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입각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의식을 집행하는 데에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매년 들어가 신권을 위해서 대속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레위의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이들은 백성들을 대표했습니다. 궤의 뚜껑인 속죄소는 회개로써 죄를 덮는다는 대속 자체를 상징합니다. 또한 뚜껑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곳이었었습니다. 속죄소 위의 성스러운 방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또는 그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출 25 : 22 ; 레 16 : 2 ; 민 7 : 89)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가려져 있듯이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인 이 궤가 장막 밖으로 나오면 가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굳기처럼 이 궤를 전쟁할 때나 여행할 때 앞세워 운반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궤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에게 주시는 힘, 선, 자비, 지식의 상징이었었습니다.

이 방주는 시나이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 경험, 여리고 성의 멸망 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궤의 중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었습니다. 한때 약속의 땅에 신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 궤가 여러 곳에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사사가 통치하던 때에는 궤가 벤엘이라는 마을에 보관되었습니다. (삿 20 : 27) 사무엘이 예언자로 있을 동안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궤는 실로에 있었으며 (삼상 1 : 9, 3 : 3) 전쟁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이 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 궤를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가졌으므로 수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질병으로 심하게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려 주었으며 그 곳이 기랴아렘이라 하는 마을이었었습니다. (삼상 4-6) 그 후 20년간 사울 왕 시대에는 한 번의 전쟁에서 이 궤를 필요로 한 것 외에는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 왕은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 왔으며 그 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많은 전쟁과 분란이 따른 오랜 기간 동안 성약의 궤는 유다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하여 왔

입니다. 이 케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요시아 왕 때입니다. 그 후로는 이 케가 어디에 있는지, 존재하는지 전혀 경전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인 역사가 조세푸스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의 신전에는 이 케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세푸스, 유대인의 전쟁, 제5권, 5페이지) 유대의 습관으로 미루어 보아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와 전쟁할 때에 성전을 파괴하면서 함께 이 케도 파괴하였거나, 아니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케를 수세기 전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 보았던 산 위에 숨겨(느보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시 집할시킬 때까지 묻어 두었으리라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현재 존재하는지 오늘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일성도의 성찬 찬송인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은 이 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서 우리는 이 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케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 이스라엘인을 도와 준 웃사의 이야기는 말일성도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케를 반드시 합당하게 인정된 사람에 의하여 막대기로 끼워서 운반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된 대표자들이 케를 호위하기 위하여 모였으며 웃사와 형제인 아곤이 수레를 모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성읍으로 들어 가려는데 수레를 끄는 소가 뛰어들어 케를 흔들었습니다. 웃사가 “케를 붙들었더니”(삼하6:6) 여호와와는 웃사를 치사 죽게 하였습니다. 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웃사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케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손을 내밀”려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 나름대로 속단하려는 자에게 저주와 심판이 내리리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교성 85:8-9)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매우 어려운 환경과 시기에 교회가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법케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정사 5권 20페이지) ㉮

에드워드 제이 브랜트  
숄트레이크  
종교 학원



1974년 2월호

## 예언자의 역할에 대한 토론

# 살아계신 예언자란 무엇인가?

**주**께서는 교리와 성약 1편을 다 음의 말씀으로 맺으셨습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 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교성 1:38)

우리는 방금 그의 종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리 대관장님은 과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하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의 빛 1974년 2월호

에이 데오도르 터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간증하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요셉 스미스가 복음을 회복한 예언자임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분 이전의 모든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그분도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언자란 무엇입니까? 나 이를 말합니까? 그는 젊어도 좋고 늙어도 좋습니다. 독자의 외투를 입고 지팡이를 들어야 할 필요는 없음

죽은 예언자를 믿기란  
쉬운 일입니다. ……………  
살아계신 예언자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다. 그의 외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라 해서 특별히 높은 교육적인 지위를 얻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특별히 상류 계급 출신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이어도 좋고 가난하여도 좋습니다. 또한 인간의 신임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예언자로 택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요 15 : 16)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5조)

그렇다면 예언자란 인정받은 주님의 대표자입니다.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가 알아야 할 예언자의 중요한 요건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교사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진리 또는 진리의 설명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죽은 예언자를 믿기란 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신비스러운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 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일의 문제에 당면해야 하는 예언자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언자를 믿는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예

언자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교회 전반에 대한 계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제시합니다. 다른 누구의 말보다도 그의 말을 교회와 이 세계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불같이 느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개종이 가능하다.”

사람들 중에는 한 인간에게 주어진 권능과 권세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외길로 이끌지나 않을까?”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는 결코 나 또는 이 교회의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외길로 데려 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려 한다면 주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며, 누구라도 하나님의 예언자와 자기의 의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릇되게 인도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주께서는 그를 물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북크래프트사 1946년] 212-13 페이지)

헨리 디 오일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점점 나이가 들고 대관장님과 더욱 가까이 접할수록 나는 우리가 오늘날 지니고 있는 경전중 가장 위대한 경전은 바로 현재의 경전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그의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경전인 것입니다. 이는 경전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요, 율법이며 나는 이것을 무엇보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조셉 에프 스미스



히버 제이 그랜트



조지 앨버트 스미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리

다도 사랑합니다.” (브리감 영 대학 3개 스테이크 연합 노변의 모임, 1963년 1월)

주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 (교성 68:4)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생명이 있는 신전을 통하여 생명의 나무, 생명의 샘, 생명의 예지를 얻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때로부터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때까지 또는 요셉 스미스의 앞에 하늘이 열렸을 때까지 항상 교회와 회원이 처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받은 계시로 인하여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지 않았으며, 노아가 받은 계시로 인하여 롯이 소돔을 떠나지 않았고, 이러한 계시가 이스라엘의 자녀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지도 않았습니까. 이들은 그때 그때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수, 베드로, 바울, 요한 그리고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진대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복음왕국, [데저렛 출판사 1944년] 34페이지)

울슨 프랫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외면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평범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는 예언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록된 경전만을 따르고

살아 있는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록된 경전은 우리를 벌할 것입니다...” (설교집 7권 373페이지.)

성도를 가르치는 것은 예언자의 권고의 책임입니다.

윌포드 우드렘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합당하게 인정받은 이 백성의 지도자의 권고를 거역한 사람이 결코 반성하지 못하며, 나는 이것을 교회 회원이 된 이래로 보아 왔습니다...여러분도 이 권고를 거역한 사람은 결코 반성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보다는 권고로써 다스려질 때가 많으며 이는 성도가 가진 축복입니다...” (설교집 14권 33, 36페이지)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님은 권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권고의 중요한 의미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법을 죄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나, 따를 수 없는 심한 권고를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권의 권능으로 주는 권고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 연설, 1957년 2월 26일)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은 오늘날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많은 예언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자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이 지금 현 세대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시

기를’이라고 주님의 예언자가 선언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은 계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많은 계시 중 이와 같은 말이 들어 있는 계시도 많으나 없는 계시도 많이 있다.” (처어치 뉴스, 1954년 7월 31일)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현재의 증인인 우리는 예언자의 간증과 우리의 간증을... 우리를 지켜 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책임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간증을 나눈다면 그들은 신뢰를 가지게 되고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결정을 아무도 파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7년 12월, 100페이지)

교회의 대관장을 따른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이 대회 중에 다른 총관리 역원, 예언자,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보라 주는 하나님이시고, 성신은 증거하시나니, 기록은 참되며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38-3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심

## 계시의 반석

**아**담의 육대 자손인 에녹은 경전에 의하면 삼백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보아 확실히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천지의 창조자로부터 그에게 계시된 영원한 진리와, 그의 마음 속에 스며든 이해의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값진 진주 모세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고 주께서는 내 얼굴을 마주대고 서 계시며 사람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하듯이 나와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러 세대 동안의 세상을 보여 주리라 하시니라.” (모세서 7:4)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땅 위의 모든 주민을 보여 주시고는 인간의 자녀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사악함을 보았으며 노아 시대의 큰 홍수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또한 절정의 때에 인자가 육신을 갖고 오실 날을 보았으며, 인자가 십자가를 진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애통하며 땅이 신음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가 주님께 탄원하며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살아 있음이 분명한 것 같이

조셉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마지막 날, 악행과 보응의 날에 오리라. 그 날이 이르러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나 그날 전에 하늘은 어두워지며 땅은 흑암의 휘장이 덮힐 것이요, 하늘은 진동하리니, 땅도 그러하리라. 또 시련이 인간의 자녀 가운데 있을 것이므로 나의 백성은 내가 보존하리라” (모세서 7:60-61)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인간이 지상에 거하기 전,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인간이 지상에 오게 될 계획과 다음에 올 세상에서의 구원이나 승영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경륜의 시대도 알았고, 지상 생활의 목적도 이해했으며 그러한 계획의 전개 상황을 완전하게 도표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에녹에게 이 세상의 역사와 수세기를 통하여 거할 가족의

존속을 어떻게 보여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그가 저들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영이 된 이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시니 저들이 좋았더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서 3:22-23)

성경 예레미야 일장에는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1:5)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치자로 삼을 것인가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여러 경륜의 시대, 그 경륜의 시대에 일어날 일, 그 시대가 오기 전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도표나 초안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러한 일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종이 예언한 것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주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재림 이전에 선행될 일을 예언해 주셨으며 주님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어 온 인류에게 선포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의 공자를 바빌론으로 데려오게 하였는데 기록에는,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를 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1:4) 그리하여 바빌론으로 데려오게 된 공자는 히브리 예언자인 다니엘이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과 그가 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왕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꿈을 기억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현인, 마법사, 마술사, 점성가를 불러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말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한 요구였으므로 그들은 왕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같이 생긴 큰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의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었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빌론 왕국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형상의 각 부분은 그 다음에 올 왕국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상기시킨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다 2:34)

또한 다니엘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다 2:44)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지상에 설 왕국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언제 자기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이 설지를 아셨습니다. 그는 이 경문의 시대에 택함받은 분인 요셉 스미스와 그 뒤를 이은 자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와 왕국의 운명을 아셨으니 그 유명한 꿈으로 지적된 목적을 달성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축복사와 예언자를 통하여 미래에 관한 상태를 알려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사나 예언자가 어린 아이나 젊은이에게 그가 교회의 사도나 예언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조셉 에프 스미스, 히버 제이 그랜트, 데이비드 오 맥케이, 그리고 이 경문의 시대에 교회의 대관

장이 되었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거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이미 그러한 예언을 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높은 직책에 임직될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었으며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과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조셉 에프 스미스(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아버지)가 후에 교회의 대관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노우 대관장이 하와이섬에서 거의 익사할 뻔했을 때 주님께서 ‘이 젊은이, 조셉 에프 스미스가... 언젠가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드럽 대관장은 한 때 어린 아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에 관해 몇 가지 사건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에게 고개를 돌리고는 잠깐 일어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장로가 일어섰습니다. “저 분을 바라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면서 윌포드 우드럽이 말했습니다.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모두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 존 제이 슈튜워드,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데저렛 서적사 1972] 124페이지). 교회의 칠대 대관장이 된 히버 제이 그랜트가 어렸을 때 상호부조회 모임이 있는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참으로



홀륭한 예언자였던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가 방언으로 그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지나와이 카드 자매가 통번한 결과 이 어린 소년이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브리감 영 대관장의 보좌였던 히버 시 킴블은 그 소년을 탁자 위에 세우고는 그가 브리감 영의 보좌였던 그의 아버지 제테다이아 엠 그랜트보다 교회에서 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랜트 형제가 24세의 나이로 틀레\* 스테이크 부장으로 있을 때 축복사였던 존 로우베리 형제가 축복을 주었는데 축복문 중에서 장차 교회를 이끌어 가는 정원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축복을 준 후에 그랜트 형제에게, “히버형제님, 제가 손을 형제님의 머리 위에 얹었을 때 본 것을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랜트 형제는 후에 교회의 대관장이 되고 나서 로우베리 형제가 그 말씀을 했을 때 마치 어떤 음성, “당신은 후에 교회 대관장이 될 것이오”라고 마음 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랜트 형제는 그런 생각이 자기의 추정이라 생각하여 교회 대관장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있을 당시에 선교부장단 보좌인 제임스 맥머틴 장로

의 감리 아래 아주 영적인 선교사 모임이 열렸습니다. 맥머틴 형제는 간증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경험을 말하다가 맥케이 장로에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케이 장로님, 저는 지금 구세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베 형제를 굳게 하라.”(눅22:31,32) 그리고 나서 그는, “형제님이 충실하면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외에도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예레미야, 그외의 고대 예언자들처럼, 이 경륜의 시대의 지도자들도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택함을 받아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을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예고하는 상황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즉 종교 개혁자들, 루터, 칼빈, 녹스, 그외 인물들에 의해 이론 업적, 일반 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특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출판한 일, 출판 기술의 놀랄 만한 발전, 양심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정신의 양양,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여 청교도들이 이 땅\*\*으로 이주한 일, 독립 전쟁+, 헌법 제정++ 등이 모두 복

음의 회복을 위해 길을 준비한 것이며 때를 기다린 전조입니다.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및 천사들이 방문함으로써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비로소 지상에 시작된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과 예지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 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졌으며 주께서 재림할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경험과 전능하십시오. 처음으로 처음과 끝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를 통하여 이 지구 위에서 인간 생활의 예정표, 인류의 역사를 제시해 주셨고 지금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서 모든 과거의 경륜의 때의 열쇠가 회복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시기이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내리시고,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난 시기이며, 남자와 여자에게 성신이 임하여 작용하는 때이며, 그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사물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오늘날 지상에 그러한 큰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마련된 계획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몬이즘이라 일컫는 것은 바로 계시의 반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영원한 진리이며 생명과 구원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인]

\* 틀레 : 솔트레이크시 남서쪽에 위치한 유타 주내의 마을 이름

\*\* 미대륙

+ 미국 독립 전쟁

++ 미합중국 헌법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

# 너희 어린것들을 보라

**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노래를 듣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신 니파이 삼서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 그들 주위에 앉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 다 모일 때까지 우리가 길을 비켜 주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도 어린 아이들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보매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기도를 마치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차례대로 안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하시더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니파이삼서 17 : 16-19 21-23)

나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쉽게 따르다는 점을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에는 아직 네 살이 못된 꼬마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마음의 불을 켜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빠"라고 불러 주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도 그로부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시127 : 3)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나의



보이드 케이 팩거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합창단원으로 이 자리에 있으며, 또 다른 많은 어린이들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성인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해도 개의치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어린이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어린 시절에 배워두면 좋을 이야기로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많은 것들이 설명되며, 이것을 모르면 그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 날 때 창조되지는 않았습니까. 단지 육신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곳에서부터 이곳에 왔습니까. 지구에

서 살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세상에 와서 살게 된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죽어야 할 육신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갖 일을 미리 마련하셔서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스러운 사랑을 통해 여러분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신에 언제 들어와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마음의 도구이며 인격의 바탕이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일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을 통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린 형제 여러분 이제 나의 손을 여러분의 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손은 살아 있습니다. 이 손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장갑을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장갑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영이 몸안으로 들어 와야 비로소 몸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영과 육을 가지고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

장차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혹은 질병이나 사고로 영과 육신이 분리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나의 손은 여러분의 영, 그리고 장갑은 여러분의 몸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 몸 안에 있는 영은 몸이 일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손을 그 장갑에서 빼내면 몸을 나타내는 장갑은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 스스로 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장갑은 그대로 떨어져 되며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은 불사불멸이며 육신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대관장단, 임프르브먼트 이라, 1972년 3월호, 463페이지)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를 뜻합니다.

눈을 통해 밖의 세상을 보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웃고 행동하고 지식을 갖고 살아 가게 하는 것은 영원한 여러분의 영입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나 혹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때를 기억합니까? 그 때 부모님께서 관에 누우신 분은 단지 할머니의 몸이며 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가셨고 그 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실을 잊지 않겠지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이며 이는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이 죽음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와서 얻은 몸을 곧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살도록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이곳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살 수 있게도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지구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형이 멀리 선교사로 떠나 집에 없거나 누나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할 때 부모님이 갖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집에 있는 여러분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

을 더욱 사랑하는 듯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집에 없는 형이나 누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안부를 전하기도 하여 그들을 격려합니다.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사랑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도울 사람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영의 자녀이며 또한 이 지상에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육과 영의 재결합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주일학교나 초등학교 그리고 가정의 밤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육신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하나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영과 육이 결합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주님에게서 받을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러 학교에 다니는 것과도 같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꼬이는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또 다시 분리되는 상태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어리지만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분리된 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입

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된 상태로 머물어 그의 면전에 다시 설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리는 둘째 죽음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글읽기를 배웁니다. 이제 경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를 시켜 그의 말씀을 모든 사람, 곧 남자와 여자에게 전해 주시며 이 뿐만 아니라 여러번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어 지혜있는 자와 학식이 있는 자를 당황케 하시느니라”(앨 32 : 23)

우리는 경전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신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청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매...”(니파이일서 15 : 34)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깨끗이 보존하고 영적으로도 깨끗하여 이 세상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되어 쫓겨나는 영적인 죽음을 이기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 위에 사실 때 그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생활을 계속한다면 영적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는 물에 장사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이는 다시 탄생하는 것이어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죄를 벗어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여러분의 육신만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어느 곳에서 이곳으로 왔  
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교회 즉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  
도할 성신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하늘의 집으로부터 우리가 가야할 곳  
을 알려 주는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  
습니다.

주님은 예언자와 사도를 불러 그의  
교회를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예언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어 보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나이일 때 배운 교  
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때  
내 나이가 아마 여섯 살이나 일곱 살  
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동생과 나는  
(우리는 나이가 비슷했다) 함께 스테  
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지  
금도 유타주 브리감시에 있는 그 건  
물로 걸어 들어가 발코니 바로 아래  
로 가서 “바로 여기다”라고 말할 수  
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곳 연단  
에서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께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십  
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나  
는 그 때 그분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  
서 말씀했는지 혹은 회개나 침례에  
대해 말씀했는지 기억하지는 못합니  
다.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동안 나의  
어린 마음에 주님의 한 종이 그 곳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심어 주었습  
니다. 저는 그 때의 느낌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마음  
속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십  
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지만 이 사람  
들에 대한 그 때의 느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원에서 만날  
때 주위를 둘러 보며 이 사람들이 지  
상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  
들은 주님의 특별한 증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많은 시험을 받게 될 것  
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사탄을 대리하는 자가 있어 사악한 것  
을 가르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매우 마음을 끌 때도 있습  
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범할 때가 있  
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  
신 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을 갖  
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실망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는  
슬픔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  
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수님은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  
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구 위에는 예수님의  
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의  
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회  
에는 그에 관해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이 수 없이 많으며 저도 그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직 어릴 때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들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오기 전에 전세에  
서 살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받고 시

험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되며 우리는 그것을 죽음으  
라 부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  
속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  
리가 침례를 받고 복음대로 살아 간  
다면 이 둘째 죽음에서 구원될 것입  
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  
랑하시며 우리에게 주님과 구세주  
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여러 어린이가 있는  
이 교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자기에게 오게  
하신 구세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  
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린 아이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들  
을 때  
나도 그곳에 함께 있고 싶어집니  
다.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를 안아 주심 원하네  
어린이들아 내게 다 나오너라 하신  
얼굴 보고 싶으라  
다 함께 노래를 meB—OP.

나의 어린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나는 하  
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  
를 쓰다듬으시며 여러분을 봉사의 길  
로 부르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압  
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증  
거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그  
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  
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  
하는 어린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서 여러분을 굽어 보시고 축복해 주  
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헌신적인 회원에게 주어지는 보상

## 교회의 진정한 힘

**이** 위대한 사업에 함께 종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태버나클에 들어올 때면 언제나 이 건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리를 가르칠 전당으로 헌납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 위에 서서 신앙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참으로 위대하고 성스러운 신뢰감이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저는 바로 그런 뜻에서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세상의 여러 곳에 있는 훌륭한 형제 자매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 중의 몇몇 사람들로 부터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아시아에서 온 한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활달한 청년으로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해군에 있는 미군인 동료 중 몇몇 사람의 행동에 그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또 그들은 그 장교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 받았습니 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온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과 현대의 예언자에 대해서



고든 비 힝클리 장로

도 이야기했으며 주님의 복음도 가르쳤습니다. 성령이 그의 가슴에 감화를 주어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를 소개받기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제님 나라의 국민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또 형제님의 나라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형제님이 기독교인으로 특히 물몬인으로 귀국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에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집안에서는 실망을 하겠지요, 아마 저를 쫓아낼 것입니다. 저를 죽은 자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의 장래와 사회 생활에서 모든 여진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복음으로 인해 그같은 큰 희생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눈물에 젖는 그의 검은 눈동자가 총기어린 그의 얼굴에서 반짝였으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까?”

나는 그러한 질문을 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렇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그는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도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교회의 성장을 통계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반가운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최근의 인기 텔레비전 프로 담당자인 조 개레이올라가 전국 기독교 연합회의 회장인 딘 엠 켈리 목사와 대담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는 널리 알려진 큰 교회는 회원 수가 줄어드는 예를 지적하고 반면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다른 교회 단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회원이 줄어드는 교회는 “교회가 회원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고 어떤 사람이거나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또 회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며 어떤 신앙적인 요구나 봉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시간과 노력과 재산의 희생을 요구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에서 백만 이상

의 회원을 가진 교회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솔트레이크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말일성도들의 물몬 교회인데 그 성장율은 년 5퍼센트이며 이는 급속도의 성장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분석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각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알려 줍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헌신과 희생과 규율을 요구하는 종교는 그 회원이 충성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로 부터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그러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요 3:5)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에 지킴에 있어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다른 가르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로도 그 뜻을 애매 모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문은 좁고 길은 험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위의 영원한 결과를 다루는 조직체라면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하며 또 그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규제를 위한 조치나,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을 기대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락을 얻는 값이 클 수도 있고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현실을 통해 인품과 힘과 고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고 허용할 때는 결코 위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실과 충성과 힘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어려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수양으로 일어나는 내적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미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면이 하나 있으니 이것 없이는 자기 수양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억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러한 규제는 없습니다. 공포 때문에 강요된 규제

는 그 결과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확신에서 오는 긍정적인 규제는 참으로 경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종교적인 문제에서 한 사람이 진리에 대한 커다란 확신을 얻게 된다면 그는 교회에서 지운 요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자기는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위대한 대업을 위해 봉사할 때 기쁨과 만족이 온다는 것을 알아 스스로 수양을 쌓게 될 것입

눈물에 젖은 그의 검은 눈동자가 총기어린 그의 얼굴에서 반짝였으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까?”



타트 해닝거 그림

니다.

켈리 목사가 지적한 이 교회의 놀라운 발전은 교회가 회원들에게 지은 책임에서보다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요 행복과 평화와 만족이 의로운 봉사에 있다는 것을 안 회원들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웅장한 건물로 둘러싸인 역사적인 태버내클의 템플 스퀘어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힘은 이 건물이나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운영하는 대학교나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시설이거나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참다운 힘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제 리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사업이 참된 것임을 아는 간증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간증을 갖게 되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성취해야 할 목표가 됩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30)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의 책임의 멍에 곧 교회 지도자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현실적인 회원에게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미국 동부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교회에 개종한 지 몇개월 밖에 안되는 한 엔지니어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내가 그들을 집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내는 선교사의 복음 이야기에 열심히 참여했으나 남편은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끌려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아내는 그에게 칩레를 받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는 울컥 화가 났습니다. 칩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내가 알고 저러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빼앗겨야 하고 십일조 때문에 돈을 잃어야 하고 친구도 잃고 담배도 더 이상 피울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급히 옷을 벗어 입고는 문을 힘껏 밀어 닫고 거리로 뛰쳐 나갔습니다. 그는 아내와 선교사에게 그리고 선교사들이 자기 집에 오도록 허락한 자신에게 욕지거리를 하였습니다. 한참을 몸이 지치자 화도 좀 누그러졌고 기도의 영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질문에 답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너무도 뚜렷하고 분명한 느낌으로 “그것은 진리이다.”라는 속삭임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진리이다.” “그것은 진리이다.”라고 그는 계속 혼자 되씹었습니다. 집으로 걸어 오는 동안에 그를 그렇게도 화나게 하던 규제와 요구가 어떤 좋은 기회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 갔을 때 그의 아내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자기 가정에 찾아 온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십일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그의 전채산을 드린다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사를 위해 바치는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주일의 노동 시간을 조금 더 계획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책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통해 발전했고 생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기술 교육을 받아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세계의 사정에 익숙해 있는 이 기술자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의 생애에 일어난 기적을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훌륭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사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고집세고 현실만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나 간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복음이 다시 지상에 회복되어 그 기회를 잃지 않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간증의 불길이 조용히 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예수님은 신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7:16-17)

모든 사람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 이 사업이 갖는 경이로운 점입니다. 교사나 설교자나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간증을 전할 때 이외에는 그들에게 항상 의존하지만은 않습니다. 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욥 32:8)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사실인 것과 같이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참인 것을 안다면 그 때부터 인생의 목적과 이웃에 대한 큰 책임과 가족에 대한 큰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참 목적을 아는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를 훈련시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성 19 : 23)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총명을 넘어서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됩니다.

독일 베르호테스가멘의에서 미국 군인 대회에서 한 총명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자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나는 그곳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의관으로 계급은 소령이었는데 그녀의 전문 분야에서 크게 인정받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1963년 9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나는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흰 셔츠에 단정히 타이틀 맨 두 젊은이가 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빗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판매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젊은이가 ‘우리는 판매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입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집안으로 안내하여 그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간증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특권과 영광에 대해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저의 마음에 가져다 준 기쁨과 평화는 바로 지상의 천국 그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저의 간증은 제 생애에 받은 가장 값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저는 영원히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이 같은 방법으로 알려집니다. 이 부름은 아시아에서 온 나의 친구 해군 장교에게도 그와 같이 전해졌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기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해드린 여의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와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천이 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성령의 증거를 간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그러한 증거를 가질 수 있다는 나의 간증을 드립니다. 복음의 진리가 옛날에 베드로에게 전해졌듯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베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베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 복음 16 : 13-18)

이 계시의 반석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원천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간증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하심입니다. 지옥 문이 영원한 진리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욱 훌륭하게 잡고 담으며 그것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모든 것에 관해 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증을 드리며, 이러한 진리를 아는 지식의 축복이 진리를 절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진리를 지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